

북한 국어 교과서의 ‘생동한 표현’ 연구

박소은*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생동한 표현’의 국어교육학적 위상
- III.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생동한 표현’
- IV.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생동한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을 토대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국어교육관을 파악하는 데 있다. 북한의 국어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국어교육관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합의된’, ‘합일된’ 국어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구성하게 될 이른바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북한의 교육강령에서 ‘생동한 표현’은 글쓰기 영역의 학습 요소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그 하위 요소가 ‘음성상징어, 관용 표현, 비유’ 등 대부분 문법 교육 내용이라는 점은 특이하다. 이것은 북한이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실천’을 강조한다는 데 근거한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북한은 언어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까지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사

한편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의 제시 방식상 북한 사회가 갖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숭배의 태도가 예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국어과 교육 내용에, 사회 체제를 선전하고 통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 또한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생동한 표현, 북한의 국어교육, 북한의 국어 교과서, 김정은 집권기의 교과서

I. 들어가며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생동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양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국어교육관을 파악하는 데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연구소에서 펴낸 <조선말대사전(2017)>에는 ‘생동한’의 기본형인 ‘생동하다’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생동하다(生動-) [형] ① 현실적으로 살아움직이는 것처럼 실감있고 생생하다. Ⅵ 기억이 ~. 생동한 현실. 생동하게 씌여있다. 생동한 자료. | 그 형상이 너무 생동하고 진실해서 동무들은 최철성이 무기뻗은 장면을 직접 보는데는 것 같았다. (충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1932년》) ② (동사로 쓰여) 살아서 생기있게 움직이다. Ⅵ 만물이 생동하는 봄.

북한에서 ‘생동하다’는 무엇인가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실감나고 생생하게 표현할 때 사용된다. ‘생동하다’는 서술어는 ‘자료’뿐만 아니라 ‘기억, 현실’과 같이 유무형의 실체를 꾸밀 때 쓰인다. 남한의 <표준국

어대사전>에서도 '생동하다'의 뜻을 '그림이나 글씨 따위가 살아 움직이는 듯이 힘이 있다(「형용사」)',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다(「동사」)'로 정의한다. 무엇인가를 실감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에서 쓰는 '생동하다'는 말에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생동하다'가 투명성¹⁾이 높은 단어라는 점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생동한 표현'은 사전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것이 북한의 국어과 교육강령(교육위원회, 2013)과 국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어교육학적으로 특수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전제하였다. 따라서 '생동한 표현'이 교수·학습 내용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국어교육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모든 교수·학습 활동이 통치 이념 및 사회 체제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최고 지도자를 위시한 당의 영향력이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 편찬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1인 독재 체제를 따르는 북한의 경우, 특히나 국가 경영에 근거한 철학이나 통치 이념을 바탕에 둔 언어관과 언어 정

1) 정종수(2015:344-345)에서는 전문 용어가 지녀야 하는 기준으로 '투명성, 경제성, 고유성, 일의성, 일관성, 국제성, 문법성, 생산성, 친숙성, 윤리·미학적' 등 10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투명성'은 용어를 보고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 투명성이 높은 용어를 사용하면 학습자가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내용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책이 국어교육의 목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이러한 관계가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강보선 외(2016), 김양희(2016), 강보선(2017, 2018), 강보선 외(2017), 권순희 외(2017), 이향근(2018), 주재우(2018¹, 2018²), 이민형(2019), 정경화·권순희(2019), 박소은(2020, 2021) 등의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기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현행 북한의 국어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생동한 표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 ‘생동한 표현’ 또한 북한이 추구하는 국어교육관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교육강령의 진술 방식을 토대로 ‘생동한 표현’이 지닌 국어교육학적 위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교육강령의 체계를 개관하고 여기에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교수·학습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생동한 표현’은 북한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나, 고급중학교에서는 문학 학습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주로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항목 및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교수·학습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회의 국어교육관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의 그것과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II. '생동한 표현'의 국어교육학적 위상

이 장에서는 김정은 집권기에 개정된 교육강령에 제시된 '생동한 표현'의 진술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국어교육학적 위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북한의 교육강령 체제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1. 교육강령의 체제

북한은 당 차원에서 교육강령 및 교과서 개발에 직접 개입하고 그 내용도 통제하고 있다.(최홍원, 2019:335) 교육강령은 남한의 교육부와 유사한 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적 문서이다. 백과사전출판사(1995:600)에 따르면 '교육강령'은 "학교 전반의 총체적인 학업 진행계획, 즉 학업 진행 과정과 학년별 과목 및 이수 시간 수 등을 규정"하는 '총론'에, '교수요강'은 "학과목의 교수과정 조직과 교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각론'에 해당된다.²⁾ 따라서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 각론에 대응되는 개념은 '교수요강'인데, 그 체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³⁾

2) 남한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교육강령', '교수요강' 등으로 총론과 각론을 구분한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과정을 지칭하는 '교육강령'은 총론을 뜻하기도 하고 학교 교육과정 혹은 학교 수준의 교육강령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폭넓게 쓰인다(김진숙, 2017:371)는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도 '교수요강'을 직접적으로 지칭할 때는 구분하여 서술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육강령'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이 논문에서 북한이 발행한 문서 자료를 직접 인용하거나 북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하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현행 북한 표기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그런 맥락에서 <표 1>의 '듣기능력, 말하기능력,

〈표 1〉 북한의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

북한(교육위원회, 2013)	남한(교육부, 2015)
머리말 1.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1) 교수목적 2) 교수목표 2. 교수내용 1) 교수내용 ① 글자교육단계의 내용구성 ②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지식교육 내용구성 ③ 언어실천능력교육내용구성 △ 읽기 및 쓰기 능력 △ 듣기능력 △ 말하기능력 △ 글짓기능력 △ 글씨쓰기능력 2)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 ① 글자교육 ② 읽기 및 쓰기 교육 ③ 듣기교육 ④ 말하기교육 ⑤ 글짓기교육 ⑥ 글씨쓰기교육 ⑦ 기초원리 지식교육 3) 학년별범위와 수준 제1학년 (1) 교수목표 (2) 범위와 수준 (3) 도달기준 3.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4. 학과목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5. 학업성적평가원칙 1) 평가항목 2) 항목별평가내용 3) 평가방법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나. 성취기준 [초등학교 1-2학년] (1) 듣기·말하기 (가) 학습 요소 (나) 성취기준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2) 읽기 (3) 쓰기 (4) 문법 (5) 문학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자료의 예>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나. 평가 방향

글짓기능력, 글씨쓰기능력'과 '읽기 및 쓰기 능력'에서 '능력'의 띄어쓰기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만 원전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표 1>에서 보듯이 북한의 교육강령(교육위원회, 2013)은 ‘머리말,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교수내용,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학과목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학업 성적 평가 원칙’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김진숙(2017:371)에 따르면 이것은 학과목의 교수 과정을 조직하고 교수 내용과 그 방법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남한의 교육과정(교육부, 2015)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의 항목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국어의 ‘성격’에 대응되는 ‘머리말’ 항목의 진술 방식을 보면 국어교육이 언어 지식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천 능력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교육강령에 제시된 ‘머리말’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연구자)

(2)

- 언어는 인간교제의 힘있는 수단이고 자연과 사회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인간교양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정확히 리해하고 표현하는 언어실천능력이 없이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진행될수 없으며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사고활동이 이루어질수 없다.(소학교)
- 언어는 인간교제와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일뿐아니라 인간교양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정확히 빨리 리해하고 자유롭게 능숙히 표현하는 언어실천능력이 없이는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과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사고활동을 진행할수 없게 된다.(초급중학교)

(2)를 통해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에서는 ‘말과 글에 대한 지식’을 공통

으로 강조하지만, 지식만을 습득에서 나아가 이를 표현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소학교에서는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실천능력을, 초급중학교에서는 지식을 정확히 빨리 이해하고 자유롭고 능숙하게 표현하는 언어실천능력을 학습자가 갖추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는 형태로 진술되어 있다. 이는 교육위원회(2013-)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들을 언어 실천과 분리시키지 않도록” 하고, “개별적인 지식들도 리론적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정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활용능력을 키우도록” 구성해야 할 것을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토대로 할 때 북한의 국어교육은 언어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생활에의 적용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내용을 다루도록 교육강령 상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학습자가 국어 지식에 대한 습득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언어생활에 실천하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교수·학습 내용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육강령에서 다루는 ‘교수내용’은 하위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⁴⁾ 이것은 국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대체로 비슷하나, ‘교수내용’,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 ‘학년별범위와 수준’과 같은 하위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다. 대표로 소학교의 경우를 제시하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4)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내용(상위)’은 하위 체계를 포함하는 데다, 하위 요소인 ‘교수내용(하위)’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 따라서 용어 구분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교수내용’(상위)를 ‘교수내용체계’라는 명칭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2〉 소학교 교육강령의 '교수내용체계'

교수내용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	학년별범위와 수준
① 글자교육단계의 내용구성 ②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지식교육내용구성 ③ 언어실천능력교육내용구성	① 글자교육 ② 읽기 및 쓰기 교육 ③ 듣기교육 ④ 말하기교육 ⑤ 글짓기교육 ⑥ 글씨쓰기교육 ⑦ 기초원리지식교육	① 교수목표 ② 범위와 수준 ③ 도달기준

먼저 '교수내용'은 '글자교육단계의 내용구성',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지식교육내용구성', '언어실천능력교육내용구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글자교육'에서는 기초 문식 능력을, '기초지식'은 문법과 문학을, '언어실천'에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글짓기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⁶⁾

'교수내용'에서 다룬 내용은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과 '학년별범위와 수준'에서 구체화·세분화된다.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에서는 '글자교육'부터 '기초원리지식교육'에 이르기까지 해당 '내용분야'의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이 되는 중핵 학습 내용들을 열거하

5) 초급중학교의 경우도 그 체계는 동일하나 세부 내용상에 차이가 있다. '교수내용'에서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교육내용', '언어실천교육내용'의 두 차원만을 다루고 있다.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에서는 '듣기능력', '읽기능력(글읽기, 독해)', '말하기능력', '글짓기능력', '기초원리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위원회, 2013) 소학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교수내용'에서 '글자교육단계의 내용구성'이 빠진 것,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에서 '글자교육', '글씨쓰기교육'이 빠지고 '읽기'를 독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박소은, 2021:69)

6) 이민형(2019:40)에서는 '교수내용'을 통해 내용 구성의 일반적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북한의 내용 영역 체계를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 있다. ‘학년별범위와 수준’에서는 이것을 확장하고 학년별로 구체화하는데, 대부분 ‘~한다’ 등의 종결형으로 조건에 맞는 행동을 명확히 하며 끝내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이민형, 2019:41)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교수내용체계’에서 다루는 세 항목들의 관계가 교육강령 상에서는 명백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수내용’이 각각의 내용분야와 학년에 따라 반복 및 심화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북한에서는 해당 내용 요소가 중요하거나 한 번에 달성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내용 요소를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어, 남한이 학교급별 성취기준의 수 제약으로 인해 내용 요소를 특정 학교급에서 주로 한 번만 다루는 것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⁷⁾

2. ‘생동한 표현’의 교육강령 진술 방식

여기서는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강령의 ‘교수내용’에서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국어교육학적 위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내용⁸⁾은 ‘교수내용체계’, 즉 ‘교수내용’,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 ‘학년별범위와 수준’에 고르게 제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표 3>과 같다.(밑줄은 연구자)

7) 북한이 내용 요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교육강령의 진술 내용을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반복하는 ‘완전 반복’과, 진술 내용의 범위나 수준을 심화하여 반복하는 ‘부분 반복’이 있다.(강보선, 2017:203-205)

8) ‘생동한 표현’이 <조선말대사전> 혹은 국어과 교육강령(교육위원회, 2013)에서 선정한 전문 용어가 아니다보니, 이 논문에서는 ‘생동한’, ‘생동하게’ 등 관련 내용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본격적으로 관련 교수·학습 내용을 다루는 III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3〉 '교수내용체계'에 제시된 '생동한 표현' 관련 요소

학교급	교수내용체계		관련 요소
소학교	교수내용	글짓기 능력	· 글감잡기, 제목달기, 글의 체계키우기, <u>정확하고 생동하게 표현하기</u> , 글의 형태잡기능력을 키워 주도록 한다.
	내용분야별 범위와 수준	글짓기 교육	· 자기가 표현하려는 사실, 의도, 감정에 알맞는 어휘를 찾아쓰며 <u>표현, 속담을 넣어 문장을 생동하게 쓸수 있도록</u> 한다.
	학년별 범위와 수준	교수 목표	· 교재(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적인 글들과 아동문학작품, 소년신문을 비롯한 정기출판물의 글)을 원만히 살려읽고 교재글에 대한 분석능력을 기본적으로 키워주며 일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말하고 <u>생동한 문장으로 쓸수 있는 실천능력을 키워주는것이다</u> .
		범위와 수준	· <u>일반서술문에 속담, 표현을 넣어 생동한 문장으로 고쳐쓸수 있도록</u> 한다. (제4학년) · 교재에서 <u>표현이 생동한 부분을 찾고</u> 본뜻과 비유적인 뜻을 이해할수 있도록 한다. (제4학년) · 교재에서 <u>표현이 생동한 부분을 찾고</u> 본뜻과 비유적인 뜻을 이해하고 감정정서적뜻뵈밧갈과 표현적효과를 초보적으로 느낄줄 알도록 한다. (제5학년)
초급중학교	내용분야별 범위와 수준	도달 기준	· <u>임의의 문장이나 글에 대화, 묘사를 넣어 생동하고 풍부하게</u> 할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형식의 생활글을 쓸수 있어야 한다.
		글짓기 능력	· 글의 <u>구체적내용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생동한 표현을 선택함을</u> 알며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을 이야기흐름에 맞게 조화롭게 엮을줄 알도록 한다.
	학년별 범위와 수준	범위와 수준	· 글의 <u>구체적내용에 맞게 적절한 어휘와 생동한 어휘표현을 선택할줄</u> 알도록 한다. (제1학년) · 글의 <u>구체적내용에 맞게 적절한 어휘와 생동한 어휘표현을 선택할줄</u> 알도록 한다. (제2학년) · 자기 생활주위를 유심히 관찰하고 다양한 사물

			현상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세우며 그에 대한 정서적느낌을 가지도록 하고 배운 지식과 련관 시켜볼줄 알도록 한다. (제2학년) · <u>글의 구체적내용에 맞게 적중한 어휘와 생동한 표현들을 선택할줄 알도록 하며 새 어휘표현을 다소나마 만들어 쓸줄 알도록 한다. (제3학년)</u>
		도달 기준	· 관찰과정에 생동한 표상을 세우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글감을 잡아 토막글은 느낌식, 대화식의 글, 웅근글은 기행글, 감상글, 관찰보고서 등을 쓸 줄 알게 글다듬기를 할수 있어야 한다.

<표 3>에서 보듯이 ‘생동한 표현’은 ‘교수내용’,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 ‘학년별범위와 수준’을 통해 고르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교수내용’을 보면 ‘글짓기능력’에서 해당 표현을 주로 다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정확하고 생동하게 표현하기’로 진술된 부분을 토대로, 북한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생동하게 “글로써” 교수·학습 내용을 표현’하게 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수내용’의 진술은 ‘내용분야별범위와 수준’으로 구체화된다. ‘표현, 속담을 넣어 문장을 생동하게’(소학교), ‘글의 구체적내용과 환경에 맞는 적중한 어휘와 생동한 표현을 선택’(초급중학교)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바탕이 되는 내용을 다룰 것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생동한 표현’과 관련하여 학교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위계적으로 다룰 것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여기서 다룬 내용은 ‘학년별범위와 수준’을 통해 세부적으로 나타난다. 앞서 포괄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학년별로 반복적·위계적으로 제시된다. 크게 ‘생동한 문장을 쓸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교수목표를 두고, ‘표현이나 속담을 활용하여 생동한 문장으로 고쳐 보기(4학년)’, ‘교재에서 표현이 생동한 부분을 찾아보기(4-5학년)’, ‘글의 내용

에 맞는 적절한 어휘나 생동한 어휘표현을 선택하기(초급중학교 1-3학년)'와 같이 교수 내용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체적·세부적으로 제시된다. 특히 <표 3>에서 보듯이 초급중학교 3년 과정 내내 '글의 구체적내용에 맞게 적중한 어휘와 생동한 표현을 선택할줄 알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빠짐없이 언급된다. 그 자체만으로 북한의 '글짓기교육'이 적절한 어휘, 생동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하고 생동감 있는 어휘 표현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글에 변화를 줌으로써 학습자가 글을 '생동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는 데 도달 기준을 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교육강령 상에 나타난 이러한 진술은 '생동한 표현'이 구 혹은 문장 차원의 글짓기에서 다루어지는, 말과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교수·학습 내용임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생동한 표현'을 이루는 하위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강령에서는 '교재글', '일반서술문', '임의의 문장'을 '생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요소로 남한의 문법 영역에서 다루는 어휘 교육 내용을 주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속담 혹은 어휘의 의미와 그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그것이다. 교육강령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고 '생동감'있는 어휘 혹은 문장을 표현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법 교육 내용이 글쓰기 관련 내용과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같은 진술 방식은 북한의 국어교육이 '말과 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그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육강령(교육위원회, 2013)의 '교수목적'에서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초보적인 언어실천능력(소학교)' → '정연한 지식과 기본적으로 완성

된 언어능력(초급중학교) → ‘완성된 언어능력(고급중학교)’을 학습자가 갖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에서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그 실천을 위계화하여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언어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 필요한 지식을 함께 다루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언어 실천과 언어 지식을 연계하고자 하는 경향은 ‘교수목표’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교육강령(교육위원회, 2013⁹⁾)에 따르면 “문법지식을 포함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들을 언어실천과 분리시키지 않도록” 하고 “개별적인 지식들도 리론적서술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연습과정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활용능력을 키우도록” 구성해야 할 것을 명세화하고 있다. 이는 언어 실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법 교수·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뜻하는 동시에, 북한에서는 언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언어생활에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교수·학습이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박소은, 2021:72)⁹⁾ 다시 말해, 북한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언어 표현을 습득 및 이해하게 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 또한 언어생활에의 ‘적용’에 방점을 두는 북한의 국어교육관이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9) 이는 북한의 교육강령이 중국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본 서수현(2015:23)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문법 교육이 ‘학생이 글을 더 잘 익히게 쓰고, 읽기와 표현을 더 잘해서 일정한 언어 응용 능력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문법 지식 그 자체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활용 속에서 점차적으로 체험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III. 교과서에 기술된 '생동한 표현' 교육 내용

이 장에서는 '생동한 표현'이 교과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생동한 표현'이 교육강령 상에서 '글 쓰기'의 교수·학습 내용으로 진술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으나, 교육강령의 기술 방식이 교수 방법 차원에서 구현된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교과서라는 점에서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학습 활동 제시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데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생동한 표현'의 단원 편성 방식

교육강령에서 보인 '영역 통합'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구성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 2013년에 교육강령을 개편하였고 이를 반영한 국어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어와 문법 교과서를 따로 두어 왔다. 강보선(2018:121)에서는 “문법교재를 따로 주었던 종전과는 달리 국어와 문법을 통합해서 매 과마다 국어지식을 습득한 다음 그것을 활용하고 문법적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 개념과 갈래들을 학생들의 심리를 끌 수 있게 구성한 것이다.”처럼 교과서 구성 방식이 기존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문법을 독자적으로 학습하게 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문법을 국어 학습과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언어 지식을 언어 실천과 연계하고자 하는 교육강령의 진술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집권기까지는 하나의 문법 지식이 하나의 단원을 형성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김정은 집권기에 와서는 국어 교과서에서 하나의 본문(읽기 자료)에 여러 영역의 학습활동이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현행 교과서가 갖는 특징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본문과 학습활동이 결합한 일관된 형태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문법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학교급 및 학년에 따라 제시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해당된다. <표 4>를 통해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 단원에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¹⁰⁾

<표 4>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생동한 표현’ 단위 편성 방식

학교급	학년	교과서	단위 편성 방식
소학교	1~5학년	국어	· (주로) 단위별 학습활동
			· (일부) 하나의 단위 전체
초급중학교	1~2학년	국어	· 단위별 ‘학습의 길’의 ‘어휘표현을 새겨봅시다’와 ‘문법지식을 새겨봅시다’ · 4~5개 단위 뒤의 ‘실천의 길’ · 단위 마무리 ‘나도 할 수 있다’
	3학년		· 단위별 ‘학습의 길’의 ‘어휘표현을 새겨봅시다’ ¹¹⁾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모두 ‘생동한 표현’은 학습활동의 한 양상으로 주로 나타나나, 그 제시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학교의 경우 단위별 학습활동에서 ‘생동한 표현’을 주로 다룬다. 가령 소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4단원(리수향 외, 2016 7:37)에서는 “생동한 표현

10) <표 4>는 강보선(2020:75)에서 정리한 ‘문법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을 ‘생동한 표현’의 경우에 맞게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

11) 초급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면 ‘어휘표현의 뜻을 새겨봅시다’(리근세 외, 2015:43), ‘어휘의 뜻을 새겨봅시다’(리근세 외, 2015:144)와 같이 동일한 체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을 알아보지요”라는 학습 활동 아래 ‘운동장이 떠나갈듯 환성을 울리다’, ‘가슴은 쿵쿵 방아를 찧다’, ‘얼어붙은듯 서있다’와 같은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17단원(리수향 외, 2016ㄴ:27)에서도 “생동한 표현을 알아보지요”라는 동일한 학습 활동 명 아래 ‘황소만 한 꿈’, ‘귀가 솔깃하다’, ‘배가 고무풍선처럼 불어나다’, ‘손가락같이 굵은 침’ 등의 표현이 다루어진다. 이는 단원별 학습활동의 예시로 ‘생동한 표현’이 들어간 어구 혹은 문장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편 소학교급에서는 한 단원 전체를 ‘생동한 표현’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가령 소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3단원(리수향 외, 2016ㄴ:20-28)에서는 ‘글짓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본판말을 넣어 생동하게” 글을 지어 보는 내용만으로 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생동하게 안겨와요’, ‘눈앞에 안겨와요’, ‘쟁쟁히 들려와요’, ‘글속에서 본판말을 찾아보지요’, ‘자연현상과 어울리는 본판말을 찾아보지요’, ‘본판말을 찾아요’와 같이 하나의 단원 전체가 ‘본판말’의 종류와 그 효과를 이해하고 이것을 다른 경우에 적용해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 단원에서 ‘생동한 표현’을 독자적·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할 때, 북한에서는 이것의 교수·학습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급중학교급에서는 ‘생동한 표현’이 단원별 학습활동을 통해서만 다루진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그 제시 방식에 있어서는 학년별·단원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¹²⁾ 1~3학년의 경우 ‘학습의 길’의 ‘어휘표현을

12) 이것은 초급중학교 1·2학년, 그리고 3학년 교과서의 집필진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빛나(2021:76)의 지적대로 교육강령(교육위원회, 2013)에서 “구체적갈래들과 규범지식들, 문법적원리지식내용들은 문법적현상들과

새겨봅시다'에서 해당 내용이 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1~2학년에서는 그 외의 경우를 통해서도 해당 교수·학습 내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학습의 길'의 '어휘표현을 새겨봅시다' 혹은 '문법지식을 새겨봅시다'에서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제시된다. 이를테면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우인철 외, 2013:82)에서 '다음 성구의 의미와 표현 효과를 밝혀봅시다'는 학습 활동 아래 '코를 박다, 천당에 가다'가 제시된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몇 개의 단원이 끝난 이후 제시되는 '실천의 길'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루어진다. 가령 '성구 《악어의 눈물》과 뜻이 같거나 비슷한 속담을 찾고 그것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봅시다'가 이에 해당한다(우인철 외, 2013:102).

아울러 단원의 마무리적인 '나도 할수 있다'에서도 제시된다. '뜻반대 말을 리용한 속담을 찾아봅시다'(우인철 외, 2013:79)와 같이 '생동한 표현'과 관련 있는 내용을 학습자가 교과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초급중학교에서 다루는 '생동한 표현'은 제시 방식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교과서의 학습활동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강령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강조한 바를 바탕으로 문법 지식과 그 실천을 염두에 둔 교재 구성 방식상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부시켜 소학교교육단계와의 연관속에 개별적으로 보다 정확히 주다가 초급중학교 3학년 단계에 체계화하여 인식하도록 구성한다"는 진술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

2.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

'생동한 표현'이라는 말은 소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처음 제시된다. 하지만 기초 문식 능력과 관련된 '글자'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소학교 1학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국어교육 내용을 다루는 2학년에서도 해당 단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뿐 그 내용이 다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소학교 2학년에서 다루는 학습 요소 및 교육 내용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소학교 2~5학년, 그리고 초급중학교 1~3학년에서 다루어지는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내용 요소는 국어 교과서에서 <표 5>와 같이 제시되는데,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생동한 표현' 내용 요소

학교급	학년/학기	쪽수	내용 요소
소학교	2-1	36	· 본판말
		50	· 속담
		172	· 본판말
	2-2	16	· 비유
		18	· 본판말
		86	· 본판말 · 비유
		90-91	· 속담
	3-1	27	· 비유
		63	· 비유
		70-71	· 속담
		71-73	· 본판말
		83	· 생동한 표현 (성구, 본판말)
		106	· 본판말
		129	· 속담
		157	· 생동한 표현 (성구, 본판말)
	3-2	12	· 생동한 표현 (성구)
		41-43	· 속담

		93	· 생동한 표현 (성구, 본판말)
		140-141	· 생동한 표현 (성구, 본판말)
	4-1	20-28	· 본판말
		37	· 생동한 표현 (성구, 본판말)
		73	· 생동한 표현 (본판말)
		94	· 생동한 표현 (본판말)
		97-101	· 속담
		125	· 생동한 표현 (비유)
	4-2	9	· 생동한 표현 (비유)
		44	· 성구
		86	· 속담
	5-1	6-7	· 생동한 표현
		19	· 생동한 표현 (성구)
		77	· 생동한 표현 (본판말, 본뜻)
		94	· 본판말, 비유
		126-135	· 속담
		161	· 생동한 표현 (본판말, 반복)
		162-165	· 본판말, 반복, 예들러표현하는 말
	5-2	14	· 비유, 성구
		27	· 생동한 표현 (비유, 성구)
		34	· 생동한 표현 (성구)
		93	· 생동한 표현 (성구)
		140	· 본판말
초급 중학교	1	23	· 비유
		35	· 성구, 예들러표현하는 말
		38	· 속담
		40	· 성구, 속담
		51	· 성구
		67	· 성구, 속담
		79	· 속담
		82	· 성구
		102	· 속담
		116	· 성구
		145	· 반복
		146-148	· 성구, 속담
		179	· 성구, 속담(리언, 격언)
		227	· 본판말, 속담
	2	39	· 성구, 속담, 비유

		58	· 본판말
		62	· 속담, 성구
		79	· 반복
		83	· 본판말
		100	· 비유
		109	· 본판말
		141	· 비유
		157	· 성구, 비유
		161	· 속담
		177	· 비유
		186	· 성구
		201	· 성구, 비유
	3	29	· 성구, 비유
		43	· 비유
		77	· 속담
		85	· 성구
		93	· 속담, 성구
		147-148	· 비유
		196	· 비유, 속담
		212	· 속담, 성구

‘생동한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은 소학교 2학년부터 초급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매 학년마다 반복적·위계적으로 제시된다. 이 자체만으로 북한이 국어교육 내용으로 ‘생동한 표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교과서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생동한 표현’ 관련 요소는 ‘본판말’, ‘어울리는 말’, ‘에둘러쓰이는 말’ 등 단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속담’과 ‘성구’와 같은 구 차원이나 ‘비유’와 같은 문장 차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생동한 표현’의 내용 요소를 ‘본판말, 성구, 속담, 비유’로 항목화하고, 그 외의 ‘본뜻, 에둘러표현하는 말, 반복하는 말’은 기타 항목으로 다루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본딴말

‘본딴말’은 남한에서 다루는 음성상징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북한에서는 소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리수향 외, 2014 7:172)에서 이를 처음 다룬다. 여기서는 주로 자연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예시로 들고 있다. ‘구구구, 또랑또랑’은 ‘소리본딴말’, ‘둥글둥글, 부쩍’은 ‘모양본딴말’로 구분한다. 남한에서도 이를 의성어, 의태어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남북한이 동일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딴말’은 본격적으로 4학년 과정부터 다루어진다.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보면 특히 한 단원 전체가 ‘본딴말’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되는데,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리수향 외, 2016 7:21-22).



[그림 1] '본딴말'의 교수·학습 내용

‘본판말’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보면 ‘생동하게 안겨와요’, ‘눈앞에 안겨와요’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는 ‘본판말’을 활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어감의 차이를 학습자가 이해하도록 하고, ‘본판말’이 사용될 때의 표현 효과를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제시된 삽화에 관련된 ‘본판말’을 학습자가 <보기>를 통해 직접 찾고, 그것을 활용하여 세 문장 이상의 짧은 글, 혹은 시를 지어 보게 하는 구체적인 활동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교에서 다룬 내용은 초급중학교 과정에 이르러 적절한 어휘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표현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교수·학습 내용으로 확장되어 제시된다.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우인철 외, 2014:58)에서는 의성어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변환에 따른 느낌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것을 인지하여 표현할 때 주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타박타박-터벅터벅’, ‘또박또박-뚜벅뚜벅’ 등 학습자가 해당 어휘에 대한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되, 그 의미와 효과를 알고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습활동이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는 북한이 문법 지식의 이해 및 습득과 더불어 그것을 언어 실천에까지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어휘나 그 표현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글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언어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어휘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 활용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¹⁴⁾ 이해 어휘를 학습하는

13) 주재우(2018:184)에서는 이 외에도 제시된 어휘의 순서를 바꾸어보게 함으로써 어휘 차원에서 표현의 문제를 학습자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게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 어휘를 신장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실제성, 실천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국어교육관을 보여준다.

2) 성구와 속담

‘성구’와 ‘속담’은 남한에서 다루는 관용 표현을 일컫는 개념이다. 초·중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우인철 외, 2013:146-147)에서는 두 개념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 위의 성구, 속담의 짜임과 뜻을 풀이해봅시다.
 - ㄱ) 몇 개이상의 단어들 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습니까?
 - ㄴ) 그것을 이루고있는 매 단어들의 뜻을 합친것과 같은 뜻을 나타내니까?
- ◆ 다음의 항목에 따라 성구, 속담을 잘라봅시다.
 - ㄱ) 단어결합으로 된것과 문장으로 이루어진것
 - ㄴ) 의미적표현을 생동하게 하는것
 - ㄷ) 풍자, 조소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는것
 - ㄹ)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있는것

성구란 두개이상의 단어들 이 언제나 함께 결합되어 쓰이면서 하나의 통일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을 말합니다.

속담이란 성구처럼 그것을 이루고있는 개별적 단어들의 뜻을 합친것과는 다른 뜻을 나타내며 비유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때문에 표현성이 매우 높은 말들을 말합니다.

속담들가운데서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와 같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있는것들을 격언이라고 부르며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무엇을 풍자, 조소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는것을 리언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격언은 문장으로 되어있고 리언은 문장이 아닌 단어결합으로 되어있는것이 특징입니다.

- ◆ 성구, 속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봅시다.

147

(그림 2) ‘성구와 속담’의 교수·학습 내용

- 14) ‘어휘’는 의미나 용법을 알고는 있지만 글말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이해 어휘’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이 가능한 ‘표현 어휘’로 구분할 수 있고 ‘이해 어휘’는 이해의 방식으로, ‘표현 어휘’는 말과 글에서 직접 활용할 때 확장된다(강보선, 2013).

위에서는 ‘성구’는 ‘꽂무니를 빼다’, ‘시치미를 떼다’와 같이 단어 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데 반해(리수향 외, 2016ㄴ:44), ‘속담’은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고 비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표현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속담’을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서 여러개의 단어들 모여 깊은 뜻을 나타내는 말”(리수향 외, 2014ㄴ:71)로 풀이한다. 속담을 가르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속담 안의 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속담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리언’과 ‘격언’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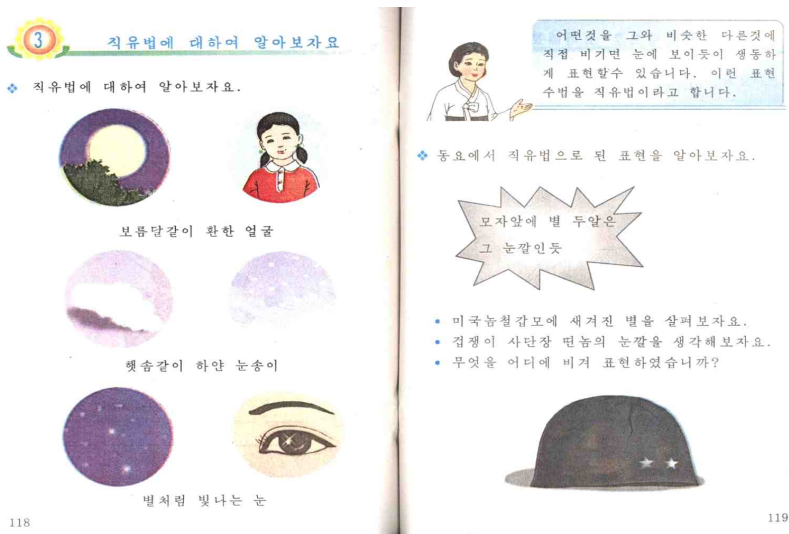
이렇듯 북한은 속담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속담이 고유어로 이루어진 완결된 문장 형식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초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우인철 외, 2013:209)에서는 고유어가 ‘가장 많이 쓰인’ 어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어휘, ‘우리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기본으로 되는’ 어휘임을 설명하고 있다. 고유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것이 한자어나 외래어에 비해 그 위상이 높은 것으로 보았던 김일성의 담화(1964, 1966)¹⁵⁾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¹⁶⁾

15)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은 김일성의 담화(1964, 1966)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김일성은 광복 직후부터 민족어 발전을 위한 언어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946년부터 한글 전용 운동의 일환으로 문맹 퇴치 운동과 고유어 전용 정책,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는 고유어로서의 말 다듬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관련 내용은 서민정(2014), 이정복(2014)을 참고할 것.

16) 1960년대에 이루어진 김일성의 두 차례 담화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유어 위주의 어휘 체계 수립을 강조한 바 있다. 1964년의 담화에서는, 단기간에 한자 폐지를 단행함으로써 여전히 한자말을 섞어 쓰고 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언중들의 언어 습관을 지적하고 있다. 한자어 사용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어휘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의 방법, 즉 고유어 강화 정책을 1966년 담화에서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기존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언어 순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

3) 비유

‘비유’는 ‘문화성이 높은 말과 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최준영 외, 2001:3)으로 인식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소학교 교과서에서는 ‘생동한 표현’의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직유법을 비유의 한 방법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리수향 외, 2016:118-121)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을 안내하고 있다.



(그림 3) ‘비유(직유법)’의 교수·학습 내용 (1)

하고 있다. 언중들이 한자어 사용과 관련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함께, ‘고유어 어근에 따라 새 말 만들 것’, ‘동일한 뜻을 가지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경우는 가능한 한 고유어를 사용할 것’, ‘한자어는 언중들이 많이 사용하여 그 쓰임이 굳어진 것만 사용하되 그 범위를 제한할 것’ 등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비단 한자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이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본말 바꾸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자세한 내용은 박소은(2021:24-25)을 참고할 것.

8 **직유법으로 표현해보자요**

❖ 이야기글 《너희들은 바다를 정복해야 한다》를 다시 읽으며 직유법으로 된 표현을 찾아 써보지요.



❖ 소설 《아버지》의 내용을 생각하며 알맞는 자리에 직유법으로 된 표현을 넣어보지요.

- ㉠ 아이들은 환성을 올립니다.
- ㉡ 제금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 ㉢ 고성기에서 꼬마방송원의 목소리가 짜랑짜랑 울립니다.
- ㉣ 덕님의 이마가 달아오릅니다.
- ㉤ 기쁨과 감격의 물결은 아이들의 가슴가슴에 서 끓어번칩니다.
- ㉥ 덕님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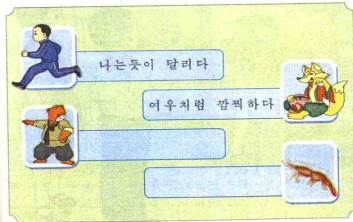
124

9 **생동하게 표현하자요**

▶ 조별로 그림카드가 붙은 문제표를 선택합니다.

▶ 조별로 토론하면서 한명이 한 그림씩 말아 직유법으로 된 표현을 써보지요.

▶ 조별로 쓴 표현들을 평가해보지요.



125

(그림 4) '비유(직유법)'의 교수·학습 내용 (2)

먼저 '직유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표현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 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문의 글을 다시 읽어 보며 비유가 들어간 표현을 찾아 써 보고, 글 내용에 어울리는 비유를 넣어보게 한다. 이는 '생동한 표현'의 효과를 학습자가 스스로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해당 삽화에 어울리는 비유를 알고, 활용하는 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수행을 평가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유'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강령에서 진술된 바와 같이 '교재에서 표현이 생동한 부분을 찾고', '비유적인 뜻을 이해하는', 다시 말해 학습자가 스스로 해당 지식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에서 나아가 글을 '생동하고 풍부하게' 표현해 봄으로써 그 표현 효과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북한이 문법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말과 글 안에서 활용하도

록 하는 데까지 교수·학습의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4) 기타

이 외에도 ‘생동한 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본뜻’, ‘에둘러 표현하는 말’, ‘반복하는 말’이 포함된다. ‘본뜻’은 단어가 갖는 기본적인 뜻을, ‘에둘러 표현하는 말’은 간접 표현, ‘반복하는 말’은 첩어를 뜻한다.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뜻’과 관련된 내용은 소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생동한 표현을 알아보지요’라는 학습활동 아래 제시되어 있다.(리수향 외, 2016ㄷ:77) 여기서는 ‘따스한 눈송이’, ‘눈부신 은빛’, ‘눈물이 샘솟듯’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습자가 해당 표현이 갖는 본래의 뜻과, 그것이 일상적인 표현과 구별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따스한 눈송이’의 경우 눈송이가 손에 닿았을 때 느낌과 그것의 반대말, 그리고 느낌이 반대인 두 단어를 함께 쓴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에둘러 표현하는 말’은 교과서에서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에둘러서 다르게 나타내는 말”(리수향 외, 2016ㄷ:160)로 정의된다. 이는 특정한 현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듣기 좋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과 가깝다는 면에서, ‘생동한 표현’의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본뜻’, ‘에둘러 표현하는 말’과 함께 ‘같은 말이 반복된 표현’도 다룬다. 반복 표현에 관해, “말하려는 내용이 더 강하게 안겨오

게 하며 감정을 보다 뚜렷이 나타”(리수향 외, 2016ㄷ:161)낼 수 있다는 특징을 통해 관련 표현의 효과를 학습자가 알게 하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를 낭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생동한 표현’과 관련하여 다소 특이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소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우리 교실’이라는 동시의 학습 활동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동시에 언급된 ‘아름다운 교실’, ‘재미나는 교실’, ‘행복한 민주의 터전’, ‘새 나라 일군’이라는 네 가지 구절을 ‘생동한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새 나라 일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리수향 외, 2016ㄷ:6-7)

(3)

· 새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왜놈들을 때려부시고 찾아주시었으며 미국 놈들을 쳐물리치고 지켜주신 조국입니다.

· 이 표현은 어떤 뜻을 담고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조국을 위하여 이 되어야한다는 깊은 뜻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3)에서는 ‘새 나라’를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조국’으로 해설하고 있고, 그러한 표현의 뜻을 알게 하도록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문을 선택하는 데도 국어 교수·학습이 지향하는 일정한 방향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박소은, 2021) 주체를 ‘김일성대원수수님께서’로 표현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최고 통치자를 우상화하기 위한 일종의 경향이자 국어교육이 관련 지식의 이해와 그 활용뿐만 아니

라 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을 갖춘 인간형을 기르는 것까지 염두에 두어 선택된 것임을 잘 보여준다.

IV. 나가며

이 논문에서는 김정은 집권기에 개정된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드러나는 ‘생동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생동한 표현’은 국어과 교육강령과 국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다만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 인식되기보다, 글의 내용을 ‘생동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활용되는 표현 일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II장에서는 국어과 교육강령에 나타난 ‘생동한 표현’의 진술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그 위상을 검토해 보았다. 교육강령에서는 해당 표현이 ‘글짓기’ 능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진술되어 있었다. ‘생동한 표현’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일반적인 서술문이나 교재글의 내용을 일부 고쳐봄으로써 표현적 효과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여기서 ‘생동한 표현’의 학습 요소로, 문법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한의 국어교육이 ‘말과 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그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는 언어 실천과 언어 지식을 연계하고자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어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확인하였다.

III장에서는 ‘생동한 표현’이 국어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집권기에 개정된 국어 교과서는 하나의 읽기 자

료에 여러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활동이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는 데 특징이 있다. '생동한 표현'은 학습 활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대체로 해당 표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학습자가 이를 활용하여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생동한 표현'과 관련하여 '본말, 성구와 속담, 비유'와 그 외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관련 내용은 어휘나 그 표현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이것을 직접 표현하도록 하여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교수·학습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실제성, 실천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국어교육관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는 '생동한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된 예문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이념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문에서 드러나는 최고 지도자를 우상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경향성은 교수·학습 내용의 이해와 그 활용에 있어서도 북한 체제가 추구하는 이념이 필수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북한이 국어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특정한 인간상을 염두에 두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어제'와 '오늘'의 국어 교육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행 국어 교수·학습 내용을 아는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 국어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구성함에 있어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분석 자료〉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소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2013ㄱ.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2013ㄴ.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2013ㄷ.
- 리근세 외, 『국어 초급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5.
- 리수향 외, 『국어 소학교 2-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ㄱ.
- 리수향 외, 『국어 소학교 2-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ㄴ.
- 리수향 외, 『국어 소학교 3-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ㄷ.
- 리수향 외, 『국어 소학교 3-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ㄹ.
- 리수향 외, 『국어 소학교 4-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6ㄱ.
- 리수향 외, 『국어 소학교 4-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6ㄴ.
- 리수향 외, 『국어 소학교 5-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6ㄷ.
- 리수향 외, 『국어 소학교 5-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6ㄹ.
- 우인철 외, 『국어 초급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 우인철 외, 『국어 초급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 최준영 외,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1.

〈참고 자료〉

- 강보선, 「표현 어휘 신장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북한의 어휘교육 내용 고찰」, 『문법교육』 제31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17, pp.181-212.
- _____, 「북한 초급중학교의 학교문법 내용 분석」, 『국어교육』 제161집, 한국어교육학회, 2018, pp.119-157.
- _____, 「통일 대비 국어 문법 교재 개발의 쟁점 - 내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문법교육』 제38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20, pp.69-98.
- 강보선 외,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연구』 제62집, 국어교육학회, 2016, pp.1-34.
- _____, 「남북한 초등학교 문법 교육 내용 비교」, 『우리말글』 제72집, 우리말글학회, 2017, pp.31-64.

- 교육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105-74호, 2015.
- 권순희, 「2013 개정 북한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제53집(3), 국어교육학회, 2018, pp.7-47.
- 권순희 외, 「남북한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제63집, 한국초등교육학회, 2017, pp.5-27.
- 김양희, 「2012년 학제 개편 이후 북한 국어 교육의 방향성」, 『국어교육연구』 제62집, 국어교육학회, 2016, pp.89-130.
-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평가와 전망」, 『북한법연구』 제17집, 북한법연구회, 2017, pp.363-404.
- 김진숙 외,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집(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pp.349-368.
- 박소은,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존경 표현' 교육 내용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75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20, pp.183-212.
- 박소은, 「북한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서민정,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17집(1),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4, pp.7-48.
- 서수현, 「중국의 어문 교육과정 분석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5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5, pp.5-31.
- 이민형, 「북한 초급중학교 교수요강과 교과서 비교 분석 -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44집, 한국화법학회, 2019, pp.31-80.
- 이정복,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배달말』 제55집, 배달말학회, 2014, pp.159-191.
- 이향근, 「북한 김정은 체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과 수록 제재의 특성 분석」, 『교육연구』 제73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8, pp.23-41.
- 정경화·권순희,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 남북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54집(2), 국어교육학회, 2019, pp.115-151.
- 정종수, 「남북한 전문용어 통합 기준에 관한 연구 - 초, 중등 교과서를 중심으로 -」,

- 『인문학연구』 제53집(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pp.337-358.
- 주재우, 「김정은시대의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독서연구』 제48집, 한국독서학회, 2018ㄱ, pp.133-163.
- _____, 「북한 초급중학교 쓰기교육 내용 분석 -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 『작문연구』 제38집, 한국작문학회, 2018ㄴ, pp.173-200.
- 주재우 외,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 『작문연구』 제33집, 한국작문학회, 2017, pp.95-116.
- 최홍원, 「북한 국어교육의 외연적 맥락과 내포적 의미의 탐색 - 중국 어문교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54집(3), 국어교육학회, 2019, pp.315-362.
- 하빛나,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영역 통합적 구현 양상 연구 - 문법교육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통합적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1, pp.74-99.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Expression' of North Korean Textbooks

Park, So-e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orth Korea based on professors and learning related to 'actual expressions' in North Korean textbooks and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Korean education in North Korean society. Understanding North Kor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meaningful in itself, as well a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so-called era of reunification in which the contents of 'agreed' and 'uniform' Korean education are planned.

'Actual expression' is considered a learning element in the field of writing in the curriculum. However,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lower elements are 'speech symbolic words, idiomatic expressions, metaphors' or grammatical education. This is because North Korea emphasizes 'knowledge' and 'practice' of language and writing, and based on this, North Korea's emphasis on understanding and acquiring linguistic knowledge and applying it to real life.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ety are reflected in the discussion. This is an example of worship toward the supreme leader. Accordingly, the education content reflects the intention of promoting the North Korean social system and strengthening its ruling ideology.

Key Words : Actual Express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n Textbooks, Textbooks of Kim Jong Un's Reign

박소은

소속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사

전자우편 : perfume2131@daum.net

이 논문은 202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21년 1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됨.